

# 中共의 開放化政策이 對外政策에 미친 影響

葉 伯 棠

- |                             |                          |
|-----------------------------|--------------------------|
| I. 序 論                      | V. 共產黨關係의 改善과 東歐市場의 開拓   |
| II. 今後의 外交政策과 經濟發展의 調和      | VI. 복잡한 對美관계 유지의 要因      |
| III. 西歐外交의 重視 및 西獨科學技術의  획득 | VII. 계속적인 對日依存과 南南協力の 改善 |
| IV. 에너지開發을 위한 英·佛과의 協力      | VIII. 結 論                |

## I. 序 論

中共이 最近에 再次 강조하는 것은 1980年代에 해야 할 3가지 重要한 일이 첫째, 反霸權主義, 둘째, 社會主義와 4個現代化 建設, 셋째, 平和統一實現이라는 것이다. 이 3가지 일 가운데 關鍵은 4개 現代化 建設이다<sup>1)</sup> 바꾸어 말하면 中共은 現代化 건설이 되기만 하면, 기타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中共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4개 現代化 建設의 추진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充分한 資金, 精密한 科學技術, 그리고 人材가 꼭 必要한 것이다. 中共 자신은 자금이 한계가 있고 技術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開放政策을 통한 外國의 科學技術과 資金을 利用함으로써 現代化 目標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本文은 中共開放政策의 對外關係에 미친 影響을 가지고 論述해 보겠다.

1) “鄧小平의 國內外情勢 放談”, 「人民日報」, 1985.9.18.

## II. 今後的 外交政策과 經濟發展의 調和

1982年 9月 1日, 中共總書記인 胡耀邦은 中共 第12次 黨代表大會의 報告에서 今後 黨과 國家의 重點을 經濟建設을 중시하는 쪽으로 옮길 것과<sup>2)</sup> 經濟가 發展하려면 먼저 生産力을 提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금 中共이 實行하고 있는 政策은 온갖 方法을 動員하여 外資를 導入하고, 外國借款을 획득하여서 建設資金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中國大陸의 水準에 적합한 科學技術을 도입하고 낡고 오래된 設備를 도매시켜서 工業生産力을 提高하고, 또 大陸의 저렴한 勞動力과 결합시켜 產品을 製造하여 國際市場에 進出하는 것이 中共의 現 經濟發展의 主要目標이다.<sup>3)</sup>

上述한 目標에 의거하여, 작년 1월에 中共의 經濟業務를 책임지고 있는 姚依林副總理는 中國大陸의 經濟發展目標을 言及하면서, “對外開放政策은 基本的인 國家政策이며, 今後的 政策은 積極的이고 온건하고 妥協的으로 外資를 흡수하고 技術을 導入하여 모든 友好的인 國家와 함께 貿易, 經濟와 技術合作을 展開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sup>4)</sup> 같은 해 2月 10日, 中共 國務院은 「全國經濟工作會議」를 召集하여, 今後에 經濟合作의 重點을 經濟效率의 提高에 둘 것을 강조했다.<sup>5)</sup> 그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은 外國의 새로운 科學技術의 導入과, 새로운 科學技術의 범위 확대, 현재 가지고 있는 技術의 改善을 加速化시키는 것이다.<sup>6)</sup> 外資와 科學技術의 導入의 편리를 위하여, 中共 中央書記處와 國務院은 작년 4월 6일에 沿海의 몇개 都市座談會를 소집하여 14개 沿海港口都市를 開放하며,<sup>7)</sup>

2) 「人民日報」, 1982.9.16.

3) Satoshi Imai, "Reform of China's Foreign Trade System", China Newsletter, No. 56, pp. 6-7.

4) 「文匯報」, 홍콩, 1984.1.28.

5) 「人民日報」, 1984.2.24.

6) *Ibid.*

7) 中共은 沿海地域의 開放을 擴大하기로 決定하고, 長江(楊子江) 三角洲, 珠江

中國과 外國의 合資經營이나 外國商社의 單獨投資經營을 集中的으로 處理하도록 이 都市들을 運用할 것을 決定했다.<sup>8)</sup>

昨年 5月 15日, 中共의 趙紫陽總理는, “今後 經濟工作은 體制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두개의 큰 일에 치중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趙紫陽의 見解에 비추어 보면, 對外開放의 目標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對外貿易을 積極的으로 發展시키며, 둘째 外資를 利用하여 生産을 發展시키며, 셋째 外國의 精密한 科學技術을 導入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說明하기를 14個 港口와 4個 經濟特區를 開放하여 沿海에서 연결되도록 하여 中國大陸의 對外開放의 先導지지를 형성하며,<sup>9)</sup> “이렇게 하면 이 地區들의 經濟發展을 加速化할 뿐만 아니라, 또 先進技術을 吸收하고 科學的인 管理經驗을 확대하며 經濟情報를 전달하고, 輸送要員을 키우는 方面에서 內陸을 支援하고 선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社會主義現代化建設事業의 發展에 力量을 가지고 促進할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라고 하였다.

趙紫陽에 依하면 中共의 沿海開放政策은 모두 3가지 目標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開放政策을 運用함으로써 外國의 資金을 吸收하고 企業投資問題를 解決한다. 둘째, 沿海都市의 建設重點은 남은 企業設

---

三角洲, 福建省南部의 廈·漳·泉 三角洲를 「經濟開放」의 沿海三角地帶로 열거한다. 이를 所謂「金三角」라 칭한다. 이것은 中共의 點에서 線으로 線에서 面으로의 對外開放擴散構想의 새로운 發展이다. 所謂「黃金海岸」은 3個 階層이 있는데, 第1階層은 1980年 以來 開放한 4個 經濟特區—深圳, 珠海, 汕頭, 廈門이며, 第2階層은 1984年 4월 開放한 14개 沿海港口都市로서 大連, 秦皇島, 天津, 煙台, 青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湛江, 北海이다. 第3階層은 최근 組織하려고 하는 「金三角」의 優先的 發展地帶이다. 「金三角」은 앞의 두 계층의 延長이다. 長江(揚子江), 珠江 三角洲는 各各 上海와 廣州가 中心인데 이들 都市는 이미 對外開放된 沿海港口都市이다. 福建省南部의 三角洲는 廈門이 中心이고 漳州가 衛星都市이며, 廈門은 4個 經濟特區의 하나이다.

8) 「人民日報」, 1984. 4. 7.

9) 「人民日報」, 1984. 6. 2.

10) *Ibid.*

備의 改善에 둔다. 세째, 開放政策을 利用하여 外國의 科學技術을 吸收하고 生產品의 해외 판매를 확대한다.<sup>11)</sup> 谷牧의 談話에서도 中共은 開放政策을 爲하여 經濟政策方面에서 또 重大한 修正을 했다는 것이다.<sup>12)</sup>

### Ⅲ. 西歐外交의 重視 및 西獨科學技術의 획득

中共은 經濟外交를 開放함에 있어 西歐工業國家에 對한 外交活動을 계 일 먼저 強化했다. 昨年과 今年 6月, 中共 總理 趙紫陽의 두차례 西歐訪問은 中共이 西歐工業國家와의 關係를 積極的으로 擴大시키려 하고 있음을 證明해 준다. 中共이 西歐를 重視하고 「人民日報」가 趙紫陽의 西歐登程전에 자신이 西歐를 訪問하는 目的을 說明한 까닭은 西歐가 比較적 先進技術과 充分한 資金을 보유하고 있고, 中共이 西歐各國과 더불어 共同으로 發展하고 互惠的이고 相互有利하게 經濟技術合作의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希望<sup>13)</sup>하고 있기 때문이다. 今年에 趙紫陽은 西獨에서 商工業界에 對해 談話를 發表하는 가운데 中共의 開放政策을 再次 상세히 說明하였다. 그는 中共이 對外貿易을 積極的으로 擴大하러 하고 있고, 資金과 技術과 設備, 그리고 人材를 導入하는 方面에서 우대정책을 실행하러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sup>14)</sup>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西歐는 經濟가 發達한 國家들이 密集해 있는 地域이어서 充分한 經濟力을 가지고 있다.”<sup>15)</sup>고 지적했다. 그는 西歐의 長點을 利用하여 中國大陸의 落後된 經濟, 특히 에너지, 交通, 通信, 電子와 材料方面을 발전시키고, 더욱 40여萬個의 現存企業에 對하여 技術改善을 進行시킬 수 있기를 希望하고 있는데, 이것이 現在 中共經濟

11) 「人民日報」, 1984. 6. 2.

12) 蕭野暉, “中共經濟·貿易은 對外的으로 더욱 더 開放政策을 實施한다.” 「匪情月報」, Vol. XXV No. 4, 1982, pp. 61~68 을 參考.

13) 「人民日報」, 1984. 6. 18.

14) 趙紫陽, “中國經濟建設과 體制改革은 健康하게 앞으로 發展하고 있다.” 「人民日報」, 1985. 6. 11.

15) *Ibid.*

體制改革의 연결사항이며, 또 今後 中共外交의 力點事項이기도 하다.

過去 中共의 對西歐外交의 重點은 政治적인 고려로 프랑스에 두어졌는데, 지금은 점점 독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것은 趙紫陽이 두 차례 西獨을 방문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中共의 對外貿易統計를 보면 西獨은 이미 中共의 4 번째로 큰 貿易對象國이다. 사실상 中共은 西獨과의 貿易關係를 줄곧 重視해 왔다. 멀리 1970年代 末期에 中共은 벌써 西獨과 經濟關係를 重視하고 있었다. 1979年 10月 華國鋒이 西獨을 訪問했을 때, 雙方은 3個項의 協議를 체결했는데, 그 가운데는 經濟合作, 文化, 科學技術의 交換이 포함되어 있으며 同時에 雙方은 또한 漢堡와 上海에 각각 領事館을 설치하고, 西獨政府는 또 8億 6,900萬달라의 차관을 中共에 제공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華國鋒은 西獨을 訪問했을 때 슈미트首相과 會見한 것 말고도, 또한 商業部 東方委員會議長(The 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Chairman of the Eastern Committee)인 아메른겐(Wolf Von Amerongen)과 雙方經濟合作과 關聯된 事項을 토의했다.<sup>16)</sup> 1983年 上半期에 雙方의 貿易額은 1982年과 比較하여 40%가 증가했다. 같은 해 10月, 西獨經濟部長官인 램스돌프(Otto Lambsdorf)가 北京을 訪問하여 雙方間「投資保障協定」을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西獨經濟協力部는 1984年 예산에 中共技術援助用으로 905萬 달라를 계상해줄 것을 요청했다.<sup>17)</sup> 이런 움직임이 雙方의 經濟關係를 날로 밀접하게 했으며 또한 西獨을 中共이 4 번째 貿易파트너로 부상하게 했다. 中共이 西獨과의 貿易關係를 重視하는 까닭은, 工業化를 實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現 中國大陸의 電力供給不足은 벌써 工業生産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나 혹은 原子力發展을 開發해야 하지만, 中共 자신의 能力에 限界가 있어, 필수적으로 外國의 資本과 科學技術을 利用하여 發電量을 증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

16) China Trade Report (CTR), (December, 1979), pp. 14-15.

17) *Ibid.*, (January, 1984), p. 7.

다.<sup>18)</sup> 이런 理由로 中共과 西獨 사이의 貿易은 석탄과 철강 方面에 편중되어 있고, 中共은 西獨으로부터 석탄과 철강 개발기술을 협조받아서 大陸의 석탄과 철강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을 希望하고 있다. 西獨의 지메크(Scholemann-Siemag) 建築會社 社長이며 獨逸經濟研究所 中國委員會 會長인 웨이스(Heinrich Weiss)의 예상에 의하면, 中共은 지금 철강과 화학공장의 조직 개편을 통한 生産力을 증가시키고 또 工業國家와 合作하여 해외 판매의 機會를 증가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共의 開放政策實施 선언은 西獨工業界의 주목을 끌고 있는 바, 昨年 9月, 西獨의 콜(Helmut Kohl)首相이 中國大陸을 訪問했을 때는, 폭스바겐자동차회사, 다임러-벤츠(Daimler-Benz)自動車會社, 지멘스(Siemens)社, 닉스돌프(Nixdorf)社, 지메크(Scholemann-Seimag)社, 크루프(Krupp)社와 原子力을 주로 研究하는 Kraftwerk Union 등의 책임자들이 수행했다. 이런 거물급 인사들의 수행방문으로부터 中共과 西獨의 經濟合作의 범위가 장차 날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西歐의 여러나라 가운데 西獨과 中共間의 貿易이 신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아래 열거하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 西獨銀行이 中共에 借款을 提供하기를 願하고 있으며, 西獨의 두번째 큰 銀行인 드레스트너銀行(Dresdner Bank)과 中國銀行, 그리고 日本生華銀行이 合作하여 中國萬國貸款公司(the China Universal Leasing Co.)를 設立했고, 또 300萬달라의 借款을 中共에 제공하여 中共의 西獨 기계설비 購買에 편의를 제공했다. 今年 6月 趙紫陽이 西獨을 訪問했을 때, 西獨政府는 5,000萬마르크의 借款을 中共에 工業設備改善用으로 提供한다는데 同意했다.<sup>19)</sup> 둘째, 西獨政府는 中共에 대한 보조정책을 채택하여, 中공의 각 工場과 企業에 소액차관을 제공, 각종 계약을 따냄으로써 中國大陸과 西獨 사이의 貿易을 擴大시켰

18) Agatha S.Y. Wongn-Fraser 著, 葉寧遠譯, “中國의 에너지 發展”, 「匪情月報」, Vol. XXV, No. 8, pp. 76-80.

19) 「人民日報」, 1985. 6. 12.

다.<sup>20)</sup> 세째, 西獨政府와 西獨商工業界는 中國大陸의 企業要員 訓練에 協調했다.<sup>21)</sup>

中共과 西獨의 經濟協力에 주목할만한 點이 두가지 있다. 첫째, 中共은 西獨에서 原子力發電所를 購買했다는 것이다. 今年 6月 趙紫陽이 西獨을 訪問했을 때 西獨電力會社聯盟(West Germany's Kraftwerk Union)과 協定을 체결하고 2基의 1,000萬와트 容量의 核發電所를 購買하기로 했는데, 모두 395萬달러에 達할 것으로 推산된다. 同時에 西獨은 水壓式核發電所 판매에도 뜻을 갖고 있다.<sup>22)</sup> 둘째, 中共은 西獨을 대신해서 核廢棄物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昨年 3月 西獨 뒤셀돌프社(Drusseldor Firm)와 中共 原子力工業公司(China's Atomic Energy Industrial Co.)는 西歐國家들을 代身하여 4千톤의 核廢棄物을 中國大陸의 西北에 있는 고비사막에 저장한다는 契約을 맺었는데 1kg의 비용이 1,500달러에 달하므로 이 交易으로 中共은 60億달러를 벌 것이다.<sup>23)</sup> 그러므로 이번 交易은 中共에게 뜻밖의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인데, 왜냐하면 中共이 통치하고 있는 中國大陸은 가난하고 낙후되었으며 건설 자금이 모자라서 他國의 借款이 매우 필요하지만, 借款을 얻은 후 부담해야 될 이자를 中共이 기한에 맞추어 상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자신이 없는 상황에 갑자기 서구국가들을 대신하여 核廢棄物을 처리하고 즉시 60億달러의 收入을 얻어서 核發電所를 건설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현재 비밀리에 협상하는 단계이지만 그러나 中共이 이 交易을 받아들일 可能性이 매우 크다.

#### IV. 에너지開發을 위한 英·佛과의 協力

昨年 12月 19日 英國의 대처首相과 趙紫陽이 香港問題 解決의 協의를

20) Dennis Philp, "Looking East Pay off", CTR, (April, 1984), p. 7.

21) 今年 趙紫陽이 西獨을 訪問했을 때, 西獨은 이미 150명의 中共留學生을 訓練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또 西獨이 계속해서 적당한 人才를 訓練하는데 協調해 줄 것을 요구했다. 「人民日報」, 1985. 6. 12.

22) *South China Morning Post*, 1985. 9. 16.

23) Dennis Philip, "Bonn Seeks Desert Daum", CTR, (April, 1984), p. 7.

마친 후부터, 中共은 홍콩問題的 解決은 장차 中華民國政府에 對한 統一戰線에 도움이 될 것이며, 1997年 以前에는 中共은 여전히 英國과 協力하여 홍콩問題를 完璧하게 처리하고 雙方貿易을 增加시켜 英國에 보답할 必要가 있음을 인식했다. 今年 3月 英國 無任所長官 데이비드卿(Lord David Young)은 經濟貿易代表團을 이끌고 中國大陸을 訪問하였는데, 雙方은 3개항의 契約를 체결,<sup>24)</sup> 雙方의 貿易關係를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이끌었다. 지금 中共은 英國과의 經濟關係에서 아래 두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中共은 英國의 석탄채굴 기술을 이용하여 中國大陸의 석탄 생산량을 提高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 中共은 英國이 北海地域에서 石油를 採掘했던 經驗을 技術協力の 方式을 통해 中共南海地域에서의 石油開發에 協調하기를 바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中共은 英國과의 技術協力を 통해서 中國大陸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不足問題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현재 중공 경제발전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目前的 상황을 보면, 中共은 經濟를 發展시킴에 있어 먼저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에너지가 충분히 開發되지 못한다면 中國大陸의 經濟發展은 반드시 影響을 받아 中共이 바라고 있는 7.3%의 平均成長率을 達成하지 못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今世紀가 끝나는 때까지 平均國民所得을 4배로 올리겠다는 目標을 達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中共의 에너지開發은 석탄과 석유 採掘, 그리고 水力과 原子力發展 부분을 同時에 進行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이 4가지 에너지가 모두 어려움에 처하였으며, 단기간내에 타개할 曁족한 수도 없다. 例를 들어, 水力發電을 發展시키는 것은 해볼만 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原子力發電은 各國과 겨우 設計契約를 맺은 단계이고, 中國大陸의 石油生産量中 가장 높은

24) 이 3개의 契約條文은, ① 雙方自動車技術의 長期協力, ② 雙方은 컴퓨터통신과 자대학교의 協力を 發展시킨다. ③ 中共과 英國의 롤스로이스(Rolls Royce)社는 飛行機 엔진 協力を 하기로 정식 署名했다.

비율을 차지하는 大慶油田은 벌써 現在生産량을 維持할 方法이 없다는 것이다.<sup>25)</sup> 그러므로 온갖 方法을 動員하여 다른 油田을 찾아야 하는데, 沿海油田의 開發은 中共이 기대하는 바이나 스스로의 技術과 財力에 限制가 있어 財源을 재원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外國의 協調를 求해야만 하는 것이다. 探査한 結果 經濟性을 가진 油井은 매우 적어서 이런 悲觀的인 상황은 석탄을 主要한 에너지로서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統計에 의하면 현재 中國大陸의 에너지消費中 석탄이 70%를 차지하며, 中共은 석탄생산량의 提高를 위해 全力을 경주하고 있으나, 작년의 中國大陸의 석탄 總생산량은 7億톤에 달해 西紀 2000年의 生産目標인 12億噸과는 아직도 격차가 대단하다.<sup>26)</sup>

석탄이 主要한 에너지源인데도 實際로는 生産량이 豫定目標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中共은 모든 方法을 動員하여 外國의 協助를 구하려 하고 있다. 中共은 英國이 가지고 있는 悠久한 탄광 探掘經驗을 고려하여, 英國과 協力하여 탄광을 共同探掘하고 있다. 지금 英國은 中共의 山東炭鑛, 開灤炭鑛 開發에 協調하는 것 말고도, 또 唐山炭鑛의 改造에 協調하고 있다. 작년 5월 중공의 中國石炭開發總公司 第1 副社長인 伯納在는 英國을 訪問한 後, 同社가 英國의 조개포 石炭國際有限會社와 벌써 協定을 맺어 장차 山東濟寧 2號炭鑛을 共同으로 合作開發하고 年 400萬噸의 生産目標을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sup>27)</sup>

中共의 석탄 生産量提高에 協調하기 위하여 英國石炭諮問會社는 6名의 전문가를 唐山과 開灤炭鑛에 파견하여 2個月 예정으로 조사를 進행시켜 炭鑛擴張計劃에 對한 건의를 제출했다.<sup>28)</sup>

雙方間의 貿易方面에서는 中·英貿易委員會(the Sino-British Trade

25) Eric Hall, "Energy Gap May Threaten China's Growth", SCMP, 1984. 3. 14.

26) *Ibid.*

27) 「大公報」, 香港: 1984. 5. 10.

28) *Ibid.*

Council)의 초보적인 統計에 의하면, 1983 年の 雙方貿易額은 5 億 6,829 萬달러에 달하여 1982 年에 비해 32%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1979 年以來로 雙方貿易에서 最高額이다. 英國通商工業省의 官吏인 크루익셰크(Paul Cruickshank)의 見解에 의하면, 雙方交易量이 增加하는 原因은 中共이 開放政策을 계속 實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9)</sup>

貿易을 強化하기 위하여 1983 年初부터 雙方은 別々 閣僚級人士의 相互 訪問을 強化했었다. 例를 들면 中共對外經濟貿易相인 陳慕華, 冶金工業相 李東治, 石油工業相 唐克皆가 先 이어서 英國을 訪問했고, 昨年에는 石炭工業相 高揚文이 英國을 訪問했다. 英國 쪽에서는 1983 年 11 月 에너지相 워커(Peter Walker)가 北京을 訪問했고, 昨年 2 月에는 貿易相 샤논(Paul Channon)이 中國大陸을 訪問했었는데, 이런 人士들의 訪問은 雙方의 貿易이 에너지와 石炭方面 등의 發展에 集中되고 있음을 證明한다.

中共은 또한 英國의 北海地域石油開發經驗과 技術을 利用하여 中國大陸의 試錐에 應用하기를 바라고 있다. 1983 年 英國의 3 個會社와 中共이 協力하여 珠江과 塘沽를 中心으로 油田을 探查하는데 共同投資했으며, 또한 南北에서 探查作業을 同時에 進行시켰다. 英國은 中共에게 시추와 石油埋藏量 評價를 해 주었으며, 또 作業要員을 訓練시켜 주었다. 英國側은 말레이시아에서 探查에 종사했었던 經驗을 運用하여 南海地域에서의 探查作業에 종사했다. 이 밖에도 英國의 다른 한 會社도 역시 中共의 南海西方石油會社와 14 個月의 담판을 거쳐 마침내 1983 年 5 月末에 中國南海홀더 試錐公社(the China Nanhai Holder Drilling Corp.)을 設立하고, 英國側이 探查要員과 試錐設備를 中共에 提供하기로 하였다. 談判에 參與했던 中共官吏가 밝힌 바에 의하면, “中共은 科學技術과 設備, 그리고 探查·試錐技術要員의 訓練을 要求했다.”<sup>30)</sup> 英國石油會社(British Petroleum Co.)의 發表에 따르면 別々 20 個社의 油井을 試錐하였으나, 단지 하나의

29) Iynne Curry, "Politics No Bar to Trade", CTR, (April, 1984); p. 4.

30) *Ibid.*

油井만이 商業性을 갖추고 있다.<sup>31)</sup> 英國의 探查를 거친 結果, 所謂「南海油田」은 매우 富饒하다는 것이다.

中共은 또 英國側과 核發電의 協調問題 처리를 談判지었다. 英國의 제너럴 일렉트릭회사는 昨年 3月 15日의 입찰에서 中共에게 總計 약 47億 달러에 달하는 核發電設備를 공급, 2基의 1,100萬와트 용량을 가진 發電機와 부속 설비를 갖춘 發電所를 세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회사는 또 香港의 中國電力公社에 대부분의 設備를 提供키로 했다. 中共의 核發電所 計劃은 英國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그 目的은 英國政府로 하여금 香港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sup>32)</sup>

今年 趙紫陽이 西歐를 訪問했을 때, 英國을 그 訪問國中 하나로 특별히 끼워 넣은 것은 바로 英國의 科學技術을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기를 바라서였다. 中共은 英國의 航空, 通信, 電子에너지, 海洋石油試錐와 探掘, 그리고 炭鑛探掘 등의 技術이 國際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또 中共에 科學技術을 充分히 提供할 수 있는 國家중에 하나라고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英國과의 技術協力과 貿易으로부터 점차 技術協力까지 확대를 바라고 있다. 趙紫陽은 런던에 체재하는 동안 대처首相과 經濟와 關聯있는 「合作協定」과 「核에너지 協力協定」을 체결했다.<sup>33)</sup>

지금 프랑스는 약 50個 工場과 會社들이 中國大陸에 駐在하고 있고 이밖에도 또 5個의 銀行이 大陸에 代表를 駐在시키고 있다. 昨年에 프랑스가 中共에서 輸入한 鑛產品, 金屬과 化學製品은 3,299萬달러에 달하여 1983年과 비교하면 29%가 증가하였고, 其他 工業製品 역시 1983年에 비하여 23.4%가 증가하였다.<sup>34)</sup>

自動車方面의 協力에서는, 1983年 下半期에 프랑스 标致(Peugot)와 르

31) 葉伯棠, “中共의 現 對西歐經濟外交”, 「匪情月報」, Vol. XXV II, No. 5, p. 17을 參考.

32) Ilynne Curry, *op. cit.*

33) 「人民日報」, 1985. 6. 5.

34) Nancy Langston, “It's Time for Technology”, CTR, (August, 1984), p. 8.

노(Renault) 自動車會社가 벌써 200 대의 自動車를 中國大陸에 판매했고, 同時에 中共은 프랑스 사비앙社로부터 시트로엥(Citroens)製 自動車 400 대를 購入하였으며, 이 시트로엥會社는 지금 上海의 한 企業과 自動車製造事業에 어떻게 投資할 것인가를 상담하고 있다. 이밖에도 46.4%의 持分을 가진 아메리칸自動車會社(American Motors Corp.)도 北京自動車工場과 버스를 合作生産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르노自動車工場과 같은 일종의 間接合資方式이다. 지금 프랑스와 中共은 4 가지 合資計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벌써 生産에 돌입했으며, 今年 3月 프랑스 쁘조自動車會社는 廣東에서 中共과 6億프랑에 상당하는 合資契約을 맺고 廣州쁘조自動車會社를 建立 各種自動車를 生産하고 있다.<sup>35)</sup> 이는 프랑스와 中共의 經濟協力이 막 發展段階에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sup>36)</sup>

그러나 프랑스와 中共의 協力關係는 여전히 에너지 開發方面에 重點을 두고 있다. 中國大陸의 沿海地域에서의 石油試錐는 아직도 큰 성과가 없다. 따라서 外國의 31 個 石油會社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例外는 아니다. 昨年 5月 프랑스 會社가 中國大陸에서 日産 8,000 배럴 수준의 油井 4 個孔을 발견했는데, 비록 探掘할만한 價値는 있으나, 北京의 外國會社의 評價에 의하면 이 4 個 油井은 단지 近境油田(Marginal Field)에 속하는 것이어서 探掘利潤이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會社는 探査할 때 投入한 경비가 1 億 4,000 萬 달러인데 겨우 본전만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의 또 다른 國營會社(Nationale Elf Aquitaine)소속의 探査船 두 隻이 渤海灣에서 沈沒한 후부터 石油試錐作業이 停止되었으며, 단지 南海北部灣地域에서만 여전히 油田을 探査하고 있다.

프랑스가 石油探査方面에서는 비록 重大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으나, 中共의 原子力發電에 協調하는 側面에서는 其他 國家와 비교해 상당한 우위

35) CTR. (June, 1984), p. 6.

36) *Ibid.*

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中共은 中國大陸에 5개의 原子力發電所를 建設할 計劃이며, 그 가운데 두 基는 프랑스가 建設을 맡았고, 프랑스 電子公社 (Electricite de France)는 벌써 中共과 協議를 마치고, 9億와트 容量의 水壓式反應爐建設에 協調하기로 하였는데, 모두 5億 2,300萬 달러에 달하고 있다.<sup>37)</sup>

1960年代와 '70年代 中共의 對西歐政策은 프랑스에 重點을 두었었다. 開放政策을 實施하고 부터는 프랑스의 地位가 西獨보다 重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여전히 中共과 科學技術方面에서의 協力을 希望하고 있다.

## V. 共產黨關係의 改善과 東歐市場의 開拓

中共의 對外開放政策實施의 最大影響이라고 평가해야 하는 것은 蘇聯 및 共產集團과의 外交關係의 改善이라 하겠다. 中共이 비록 여전히 反霸權主義를 3大任務中 하나라고 선포하고는 있으나 결코 實質的인 意味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口號로 내세우는 함성일 따름이다. 1982년 10월 中共과 蘇聯은 第1 라운드會議을 열었는데, 雙方協商의 重點은 雙方經濟의 討論이었다. 1983년 3월 雙方은 모스크바에서 第2 라운드 會議을 열었는데, 討論의 重點은 어떻게 科學技術의 交換을 擴大하고 雙方貿易量을 提高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차례 協商結果, 雙方은 國境貿易을 開放하기로 協議하고 新疆省의 疏附, 伊寧과 蘇聯의 오쓰(Osh)와 판피로프(Panfilov) 두 곳을 同時에 開放키로 결정했다. 1983년 4월 中共과 蘇聯은 國境貿易을 發展시키는 두 가지 協定을 체결했는데 하나는 하얼빈(哈爾濱)에서였고 하나는 「하랄」에서였다. 前者는 黑龍江과 우수리江 兩岸의 住民과 關聯하는 貿易協定이고, 後者는 시베리아 南部地域과 內蒙古北部와 연결되는 貿易關係協定이다.<sup>38)</sup> 같은 해 7월 1일에 이르러서는 蘇聯은 벌써

37) CTR, (July, 1985), p. 8.

20여년동안이나 폐쇄되어 있던 國境都市인 길기쓰共和國 동부의 리바치(Ribachi: 新疆省과 接壤地點)를 또 開放하였다. 蘇聯은 가솔린과 디젤油를 新疆地域에서 生産된 皮革製品과 交換했다.<sup>39)</sup> 今年 10月 3日 雙方은 新疆과 蘇聯의 하사크, 길기쓰, 그리고 타지크共和國에서 國境貿易을 열었는데, 그 곳은 바로 타치, 켈타이와 아리였다.<sup>40)</sup> 가장 注意할 만한 것은 1982년 12월 中共과 蘇聯은 鐵道콘테이너화물을 위한 協定을 체결하였는데, 貨物이 蘇聯을 通過하여 구라파와 中東으로 가고, 같은 식으로 中共도 역시 구라파에서 오는 貨物을 蘇聯, 蒙古를 거쳐 中國大陸에 輸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運輸方式은 費用을 節減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편리하고 신속하다.<sup>41)</sup>

이렇기 때문에 中共은 구라파와의 貿易을 發展시키기 爲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 蘇聯과의 關係를 改善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共과 蘇聯關係가 호전되고 있는 징후는 雙方的 貿易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인 바, 1982年 蘇聯은 中共의 16번째 對外貿易相對國이었는데, 1983년 이르러서는 10번째로 급속하게 뛰어 올랐고, 1984년의 雙方貿易額은 前年度對比 60%나 增加되었으며, 今年에 雙方的 貿易量은 또 大幅的으로 增加할 것이다. 昨年 11月 30日 雙方은 모스크바에서 今年度分の 貿易協定을 체결했는데, 雙方貿易額은 14億 1,000萬달러로 豫定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 35.7% 증가된 것이다. 過去 中共의 外交行態를 볼 때 蘇聯과의 經濟貿易額數의 증가는 雙方關係의 好轉을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다.

中共이 蘇聯과의 經濟貿易關係를 한창 強化하고 있을 무렵인 昨年 12월 中共은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 中國에 駐在하였던 소련의 총고문 안드로포프(Ivan Andropov)에게 中國을 訪問해 주도록 특별히 초청했는데 그것은 中共이 以前에 蘇聯에게서 원조받았던 낡은 기계설비의 改造와 관

38) *Izvestia* 蘇聯: 1983. 4. 1.

39) SMCP 1983. 6. 18.

40) 「文匯報」 홍콩: 1985. 10. 4.

41) 「大公報」 홍콩: 1984. 12. 5.

런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안드로포프가 北京에 머무르는 동안, 中共 副首相 萬理가 특별히 옛 친구의 신분으로 그를 초청하여 蒙古式 불고기와 北京의 구운 오리 고기를 대접함으로써 雙方關係를 날로 密接하게 하였다. 이번 訪問의 友好的인 結果로 안드로포프와 中共 第1 副首相 李鵬은 3 가지 協定을 체결하였다. 「經濟技術協力協定」, 「科學技術協力協定」, 「中(共)蘇 經濟, 貿易 및 科學協力委員會協定」이 그것이다. 안드로포프의 中國大陸訪問으로부터 몇 가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中共은 안드로포프가 訪問을 延長한 以後에도 금후 계속해서 그에게 訪問해주도록 초청하였는 바, 이는 中共의 對蘇關係改善의 決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게다가 안드로포프는 이미 1950 년대에 駐中國專門회사 總顧問職을 맡았었고, 中共의 重工業建設過程에 對해서도 잘 理解하고 있어서, 그의 이번 訪問은 中共의 落後된 工場設備改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 中國大陸에는 약 40 萬個의 企業生産單位의 대부분이 蘇聯으로부터 導入된 것이며, 그 기계설비가 낡고 生産이 落後되고 또 作業效率이 떨어져서, 기자재들을 반드시 全面的으로 補充하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sup>43)</sup>

昨年에 中共은 東獨같은 東歐工業國家와 關係를 強化하였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들 낡은 工場設備을 교체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現在 만일 蘇聯이 中共의 기자재 보충과 교체를 도우려 한다면 당연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로부터 中共이 蘇聯과의 關係를 改善하고자 하는 까닭이 주로 經濟的인 動機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今年 7月 姚依林이 모스크바를 訪問하고 雙方은 5년 안에 40 億 달러에 달하는 貿易協定을 체결했는데,<sup>44)</sup> 이는 雙方의 關係를 進一步시켰다. 사실상, 經濟는 外交政策을 執行하는 一種의 手段이므로 經濟關係의 強化

43) 畢英賢, “안드로포프의 大陸訪問分析” 「匪情月報」, Vol. XXVI, No.6, pp. 16-17 을 參考.

44) 「文匯報」 香港: 1985. 7. 11.

는 雙方關係의 改善을 象徵한다.<sup>45)</sup>

우리들은 經濟貿易의 觀點에서 中共이 蘇聯과의 關係를 改善하려는 動機를 說明할 수 있으나, 雙方의 發展은 여전히 限界가 있을 것인 바, 그 主要한 原因은 中共의 對外貿易은 여전히 美國·日本과 西歐를 爲主로 하고 있고 蘇聯에 過度하게 접근치 않으려 함으로써, 이들 民主主義工業國家들의 의혹을 사지 않으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蘇聯政府 機關紙인 이즈베스티아의 政治評論家인 파오빈이 “나의 예감으로는 1980년대 후반기에 가서야 中·蘇가 비로소 正常化된 關係를 恢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다.<sup>46)</sup> 그는 또 補充하여 말하기를 “그때가 되어야만이 中共은 反蘇聯政策을 그만 둘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가 된다고 해도 雙方이 서로 포용할 수 있고 입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 原因을 파오빈의 해석에 따르면, “왜냐하면 中國人은 우선 西方國家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일단 目的을 달성한 以後인 1980년대 후반에 가서 中共은 蘇聯과의 正常化를 표시할 것이다.”<sup>47)</sup>라고 했다. 數年以來, 中共의 對東歐外交는 政治的인 角度에서 고려되었다. 증점은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中共은 對外貿易과 낡고 오래된 設備를 淘汰시키기 爲해 東歐國家에 對한 政策을 바꾸었으며, 外交의 方法을 통하여 東歐諸國과의 經濟·貿易關係를 두드러지게 發展시켰다. 1983年初부터 中共과 東歐國家의 經濟·貿易關係는 날로 密接해져서 같은 해 1월 中共은 연이어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와 「貨物交換 및 支拂協定」을 체결했고, 3월에 또 東獨과 같은 協定을 調印했다. 동년 2월 불가리아 경제대표단이 북경을 방문했고, 3월에는 유고슬라비아 경제대표단이 계속해서

45) *Far Eastern Economic Review*(1985.7.25) pp.12-16.

46) 原文은 經濟新聞(1979.4.11)參照. 本文은 趙情, “中共과 蘇聯이 和解를 向해 달릴 可能性에 對한 研究”, 匪情月報, Vol. XXVII, No.1, pp.17-18에서 引用.

47) *Ibid.*

북경을 방문했다. 동년 12월 폴란드 對外貿易相 네토비츠(Tadeusz Nestorowicz)가 北京을 訪問, 中共과 雙方貿易의 強化에 關係를 托론했다. 이와 같은 시기에 中共은 東獨과 베를린에서 「技術 및 科學協力議定書」를 체결했다. 中共 「國家經濟委員會副主任」인 朱滄基가 밝힌 바에 따르면, 1984년 中共과 東歐國家間에 合意된 사항은 101가지의 科學技術協力이었으며, 그 貿易額은 總 8億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sup>48)</sup>

中共은 東歐國家와의 經濟關係를 強化하기 爲하여, 昨年에 中共의 經濟·貿易을 책임 맡고 있는 高級幹部들이 모두 하나하나씩 줄이어 東歐各國을 訪問했다.<sup>49)</sup> 今年에도 中共은 여전히 過去의 政策을 繼續해서 執行하고 있으며, 東歐國家에 對한 外交의 接觸을 強化하고 있는데, 특별히 對폴란드關係의 發展이 더욱 두드러진다. 今年 3月 中共은 폴란드 副首相 오포도프키(Janusz Obodowski)를 北京으로 초청했고, 또 中·폴란드經濟·貿易·科學技術協力委員會 第1次 會議에 參加하도록 했는데, 이는 최근 몇년간의 中共과 폴란드간 貿易關係의 두드러진 發展이다. 昨年 雙方간의 貿易은 1億 달러에 달하였는데, 비록 이 額數가 결코 그리 크지는 않으나, 현저한 進전을 거둔 것이다.<sup>50)</sup> 趙紫陽이 밝힌 바로는 中共은 雙方이 長期的으로 安定된 기반위에서 여러가지 形式의 協力關係를 發展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例를 들어 合資經營과 合作生産으로 雙方貿易을 進展시키는 것이 그것이다.<sup>51)</sup> 이 밖에도 對東歐業務를 책임 지고 있는 中共 副首相 李鵬은 오포도프스키에게 雙方은 現存하는 協力通路를 鞏固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協力の 內容과 方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sup>52)</sup> 東歐國家와의 貿易을 強化하기 爲하여 今年 5月 15日 國務院 副總理 李鵬은 外交部副部長(副外相) 錢其深, 國家計劃委員會副主任 黃毅

48) *China Daily*, May 20, 1984.

49) 昨年에 中共은 國家經濟委員會副主任 朱基와 對外貿易相 陳慕華, 그리고 副外相 錢其深을 東歐各國을 訪問하도록 따로따로 派遣했었다.

50) 「文匯報」 홍콩: 1985. 5. 28.

51) 「人民日報」1985. 4. 1.

52) *Ibid.*

減, 國家科學委員會副主任 曹憲林과 經濟貿易部部長代理 陳潔등을 이끌고 東獨, 폴란드와 헝가리를 訪問했다. 李鵬의 이번 東歐訪問은 近 20年來 中共이 派遣한 最高位幹部의 訪問이라 할 수 있으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中共이 積極的인 行動으로 東歐國家와의 關係를 改善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금번 李鵬의 폴란드, 東獨 및 헝가리 방문은 모두 다 昨年에 中共이 要員들을 파견, 訪問토록 했었던 國家들인데, 이로부터 中共이 이들 3個國과의 經濟·貿易關係를 強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鵬은 폴란드 訪問時, 雙方은 모두 社會主義國家로서 目標도 一致하므로 貿易往來를 통하여 雙方關係를 強化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經濟와 科學技術의 協力이라는 새로운 形式과 새로운 方途를 통해 長期的이고 安定된 經濟關係를 바로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sup>53)</sup> 東獨訪問時의 李鵬은 東獨이 中共의 企業改造作業에 協助할 수 있고 또 港口開放部門에서 協力해 줄 것을 希望했다.<sup>54)</sup> 李鵬은 또 上記 3個 東歐國家를 訪問했을 때, 各國과 마로마로 5個年 貿易協定을 체결했다. 昨年 8月 中共은 헝가리 副首相 마아리 야피푸를 북경에 초청했고, 今年 3月 25日 헝가리 共產黨이 開催한 第13次 黨代表大會에 中共은 특별히 축하 전문을 보냈으며, 이번 李鵬의 헝가리 訪問때는 經濟·貿易을 책임진 副首相 야피푸로부터 친히 접대를 받았고 雙方간 5個年 貿易協定을 역시 체결했다.

上述한 3個國을 除外하고도 中共은 또한 其他 東歐國家와의 關係를 重視하고 있다. 例를 들어 今年 5月 中共은 불가리아의 機械製作部長官 아거니양을 초청하여 北京, 南京과 上海를 訪問토록 했는데 그의 訪問은 中共이 불가리아와 機械와 電子部門에서 協力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sup>55)</sup> 今年 6월 체코슬로바키아 副首相兼計劃相 포탁(Svato-

53) *Ibid.* 1985. 5. 26.

54) 「大公報」홍콩: 1985. 4. 28.

55) *Ibid.* 1985. 5. 27.

pluk Potac)이 北京을 訪問했을 때, 中共과 5년(1986~1990) 期限의 貿易 協定을 체결하여 雙方간 貿易額을 배로 增加시켰다. 注意할 만한 사실은 今年 3월 中共은 또 陳潔을 貿易特使로서 알바니아에 派遣하여 알바니아 副首相 아자지(Pajtim Ajaji)와 貿易協定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中共의 東歐各國에 對한 活動을 살펴보면 그 目的이 東歐國家와의 貿易을 擴大하고 中國大陸에 適用할 科學技術을 導入하여 中共의 낡은 工業設備를 改造하 는데 있다는 것이다.

## Ⅵ. 복잡한 對美관계유지의 要因

中國과 美國의 關係는 상당히 복잡하고 矛盾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中共이 계속해서 反霸權主義를 수행하고 「平和共存 5個原則」을 선 進하는 까닭은 바로 美國을 目標로, 다시 말하면 미국에 대처하기 위함이 었다. 이 두개 口號의 內容을 分析하고 其他 言論을 綜合해 보면, 美國政 府의 對中華民國政策은 平和共存의 原則에 어긋나는 것이며 霸權主義的인 行爲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國家라도 外交政策을 決定할 때 반드시 經濟的인 要因을 고려한다는 것이다.<sup>56)</sup> 現在 中共은 經濟建設을 強調하고 있다. 왜냐하면 中共이 推進하고 있는 現代化가 必要로 하는 科學技術, 資本과 市場은 大 部分이 다 美國에 기대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다. 물론 中共은 西歐와 日 本으로부터 精密한 科學技術을 購買할 수 있지만, 그러나 西歐가 판매하 는 科學技術은 가격이 매우 비싸서 中共의 財力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또 日本은 비록 中共이 推進하는 現代化에 協助하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精密한 科學技術에 對해서는 가끔 全部를 내주지 않는다. 오직 美國만이

56) William R. Kinter & Harvey Sicherman,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Lexington Books, 1975), pp. 17-25; Norman J. Padelford & George A. Lincol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the Macmillan Co., 1969), pp. 169-170.

國家利益과 世界戰略的인 必要에 依據하기 때문에, 中共이 계속 反蘇만 한다면 美國은 政策上의 고려에 기초하여 中共의 現代化推進을 도우려고 희망하고 있다. 1980년 6월 美國國務省의 홀부르크(Richard Holbrooke)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美國의 中共에 對한 今後 10年의 政策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구절을 지적해 보면, “中共現代化에 協調하고 技術을 中共에 移轉한다”는 것이다.<sup>57)</sup> 이것이 바로, 왜 中共이 蘇聯과의 關係를 改善하면서도 여전히 蘇聯과 一定한 距離를 유지하는가 하는 이유이다.

中共은 經濟·貿易上의 필요에 따라 政治的으로 모종의 讓步를 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中共이 비록 西歐 및 共產黨集團과의 關係를 적극 發展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美國은 여전히 中共의 重要한 經濟目標이다. 이는 中共이 끊임없이 留學生을 派遣하고 곳곳에 市場을 開發하는데 있어 美國이 主가 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昨年 1月 趙紫陽이 美國을 訪問했을 때, 레이건政府와 두가지 協定을 체결했는데, 이는 바로 美國의 科學技術援助를 통해 現代化計劃의 實施를 가속화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레이건은 조약체결때, “하나의 現代化된, 經濟的으로 發展된, 政治的으로 安定된 中國은 모든 平和愛好人民의 利益에 최고로 符合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趙紫陽은 訪美期間동안 中共의 開放政策을 널리 선전했고 또한 美國의 商工業界人士들에게 中國大陸과 互惠平等의 기초위에서 經濟·技術協力을 擴大하자고 호소했다.<sup>58)</sup> 昨年 4月 레이건大統領이 大陸을 訪問했을때 그가 北京에서 中共과 체결한 5가지 協定의 內容을 보면 經濟的 要素가 政治的인 要素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9)</sup>

今年 7月 李先念이 美國을 訪問했는데 主要한 目的은 바로 中國大陸의

57) 「人民日報」1984. 1. 14.

58) 「大公報」홍콩: 1984. 1. 14.

59) 이 5가지 協定은 아래와 같다.

① 所得에 對한 二重課稅의 防止와 脫稅防止에 關한 協定

對美紡織製品 수출 쿼터를 증가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의 다른 도시들을 訪問하면서 中共의 開放政策을 널리 알렸고, 對外貿易의 擴大 外國資本과 技術과 設備의 導入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重視되어야 할 것은 李先念의 訪美隨行員 가운데 總理職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李鵬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는 訪問期間동안에 따로 각종 重要工場들을 방문하였었다. 이 行動의 의미는 매우 심상치않다. 統計에 의하면, 1984년 中共과 美國의 貿易은 이미 60億 달러에 達하였으며,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라 雙方貿易額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近年의 貿易統計로부터 볼 것 같으면 카나다는 中共의 다섯번째 貿易相手國으로 西獨 바로 뒤이다. 또 雙方의 貿易이 이처럼 밀접하기 때문에 昨年 趙紫陽은 美國을 訪問하기 前에 먼저 카나다를 訪問하였고, 今年에 李先念 역시 그랬다. 과거 中共은 카나다와의 關係를 중시하였는데, 주요 목적은 카나다로부터 밀을 수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昨年 趙紫陽의 카나다 訪問以後부터 카나다는 精密한 科學技術을 中國에 수출할 의향을 나타냈다. 大陸의 26個 人工衛星 접수장소에 科學技術設備을 카나다 토론토宇宙科學技術會社(Spar Aerospace)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交易은 계산은 모두 1,632萬 달러에 達할 것이다.<sup>60)</sup> 近年의 中共과 카나다 사이에서 貿易이 快速히 發展하는 原因은 카나다가 中共의 企業管理人 훈련에 協助했기 때문이다. 카나다는 407萬 달러를 5개년 훈련 계획으로 제공하려고 원하고 있으며, 1984년 1월부터 施行 開始되었고, 또한 四川省 成都에 「中·카나다 企業管理 成都訓練센터」를 세워 高級 및 中級 경제관리요원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協助하고 있다.<sup>61)</sup> 현재 中共과 西獨, 日本 그리고 구라파 經濟組織과의 經濟貿易協力 역시 모두 이런 모

② 文化協定の 1984-1998年 執行計劃

③ 工業科學技術管理協力議定書

④ 科學技術情報協力議定書

⑤ 平和的인 核에너지 利用協力協定の 假調印

60) CTR. (March, 1984) p. 5.

61) CTR. (February, 1983) p. 10.

필을 본 받아 進行되고 있다.

## VII. 계속적인 對日依存과 南南協力の 改善

1979년 1월 鄧小平이 日本을 訪問한 以後부터 의문의 여지없이 中共과 日本, 雙方指導者들의 相互訪問이 가장 빈번하다. 雙方關係의 밀접함은 政治的으로 표현될 수 있기 보다는 經濟的으로 표현된다. 地理的으로 인접해 있고 日本의 科學技術이 歐美에 비해 저렴하고, 또 日本은 반드시 大陸의 에너지에 의지해야 하고, 더우기 日本의 大陸市場에 對한 환상의 간접함은 雙方貿易關係의 밀접한 발전을 당연스럽게 만들었다. 작년 3월 日本首相 나카소네가 北京을 방문했을 때 中共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日本의 借款과 科學技術의 協力을 통한 경제발전에 있다. 그 結果 나카소네는 4,700 億圓의 借款을 中共에 제공하여 7가지 프로젝트를 發展시키는 것에 協助하도록 同意했다.<sup>62)</sup> 日本의 科學技術과 資金을 얻기 위하여 中共의 주도아래 「中日友好 21세기委員會」가 設立되었는데 이런 行動은 中共의 모든 外交活動의 한가지 目標, 즉 外國의 借款과 科學技術을 도입 4個現代化計劃을 추진한다는데 맞추어져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작년 9월 李鵬의 日本訪問은 日本과의 科學技術移轉에 관한 토의가 주임무였다. 今年 4月 中共 人大委員長 彭眞이 東京을 방문, 日本國會演說에서 “우리들은 全面的인 經濟協力關係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 投資, 科學技術協力關係를 發展시켜야 한다.”<sup>63)</sup>라고 지적했다. 이런 말들에서 中共과 日本의 經濟關係가 금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1984年 雙方貿易總額數가 132 億 달러(日本의 大陸輸出이 72 億달러에 達했고 中國의 日本輸出이 60 億 달러에 達하였다)였다. 日本은 中國大陸

62) 「人民日報」1984. 3. 24.

63) *Ibid.*, 1985. 4. 25.

의 첫번째 貿易相對國이나 日本의 수출초과가 약 12億달라이다. 또 中國大陸의 작년 對外 수입초과가 11億 달러라는 것에 의하면 이것으로 중공의 수입초과는 완전히 日本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중공이 日本에 對한 科學技術의 의뢰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今年 7月 雙方間 개최되었던 第4次 閣僚會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雙方간의 貿易역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sup>64)</sup> 中共은 日本에게 投資와 技術移轉을 擴大하고 또 大陸의 生産品을 더욱 많이 購入해 줄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 要求는 日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中共의 強力한 不滿을 사고있다. 中共은 마침내 抗日戰爭승리 40週年慶祝에 즈음하여 反日感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同時에 中共 언론들 또한 日本에서 수입된 상품의 品質이 불량하다고 비난하면서 日本에게 壓力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여전히 日本의 借款과 投資에 기대야 하고, 특별히 uranium 採掘할 技術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中共이 日本의 貿易政策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中共과 日本의 貿易관계는 계속해서 擴大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雙方貿易의 逆調는 날로 커지기만 할 것이다. 다만 어떻게 雙方간의 差異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현재 中共의 관심을 끌는 主要目標가 되고 있다.

經濟發展에 附合하기 爲해 中共의 對第3世界政策 역시 經濟的인 觀點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東南亞와 中東地域과의 外交關係를 특히 強化하고 있다. 최근 中共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와의 關係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政治的 目的과 經濟的 目的이 半半씩 섞여있는 것이라 하겠다. 今年 인도네시아는 반둥會議 30週年을 紀念하여 경축행사를 하였는데, 中共은 드디어 이 機會를 적극적으로 利用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 雙方關係를 解決시키려 했다. 中共은 또 特別히 外相 吳學謙을 派遣하여 자카르타를 訪問토록 하고, 이번 機會를 利用하여 인도네시아 수하르

64) 「人民日報」1985. 8. 2; 趙倩, “中共의 對日本經濟關係論爭” 「中國大陸研究」, Vol. 28, No.3, p. 8.

트大統領과 會見함으로써 雙方外交關係를 恢復시키기를 希望했다.<sup>65)</sup> 비록 吳學謙의 希望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는 中國大陸과의 直接貿易에 同意하였으며, 이는 中共이 間接의인 路線으로 經濟의 手段을 利用 인도네시아 商人들에게 貿易攻勢를 취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단의 인도네시아 商人들이 中共에 對해 무한한 幻想을 품게 됐다. 今年 5월 22일 인도네시아 內閣秘書인 모디오노는 단일 中共과 인도네시아 商人들이 必要하다고 느낀다면 인도네시아 政府는 中共이 자카르타에 貿易事務所를 설치하는 것에 反對하지 않겠다고 宣言했다.<sup>66)</sup> 인도네시아에 무한한 災害를 안겨 줄 것이다. 왜냐하면 中共은 一貫하여 貿易을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와의 修交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今後 中共은 인도네시아 商人들에게 統一戰線의 活動을 強化할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中共이 싱가포르의 李光耀首相에게 中國大陸을 訪問하도록 초청한 것도 똑같은 것으로, 즉 貿易으로써 政治的인 目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過去 中共의 中東國家에 對한 一貫된 政策은 바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집트와의 友誼를 도모하고, 팔레스타인組織을 支持하는 것이었다. 이란·이라크戰에 對하여 中共은 兩面的인 手法으로 中立的 態度를 取하고 있다.<sup>67)</sup> 지금도 中共은 결코 이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단지 今後에 中東國家와의 經濟關係를 強化하기 爲하여 海灣國家에 對한 活動을 強化할 것이며 또 經濟協力的 名分 아래 海灣國家와의 접촉이 날로 밀접해질 것이다. 今年 1월, 中共은 쿠웨이트 石油財政相인 알리 알카리파 (Ali Alkhalifa Al-Sabah)를 中國大陸에 초청하여 쿠웨이트의 資金을 利用하여 中國大陸에 投資하도록 유도했고, 同時에 中共은 또 大公國과의 經濟協力を 求하고 있다.

65) 「文匯報」 香港 : 1985. 4. 23.

66) *Ibid.* 1985. 5. 25.

67) 「人民日報」 1985. 6. 30.

현재 中共이 선전하는 '南南協力'은 그 目的이 바로 第3世界와의 經濟 協力の 強化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Ⅷ. 結 論

中共의 經濟外交의 發展에서 볼 때 대략적인 趨勢는 다음과 같다.

(1) 今後 中共의 外交政策의 重點은 西歐와 日本과 美國에 集中될 것이며, 外交的 努力을 통하여 外國의 科學技術과 資金을 導入하고 또한 合資 經營의 方式으로 大陸의 生產品이 各 工業國家에 擴散되도록 하는데 있다.

(2) 中共은 市場을 개척하고 넓은 生産設備를 更新하기 爲해 반드시 東歐國家와의 關係를 改善할 것이다. 따라서 政府와 政府間 關係에서 黨과 黨의 關係로 發展해 갈 것이다.

(3) 中共과 蘇聯의 關係正常化는 雙方에게 모두 有利한 狀況이지만 美國과 西歐, 더욱이나 日本과의 貿易關係를 고려하여 中共과 蘇聯은 形式的으로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이지만, 그러나 實質적으로는 雙方關係가 날로 접근할 것이다.

(4) 中共의 第3世界에 對한 關係 역시 經濟政策에 따라서 變化가 일어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中共과 아프리카의 關係는 여전히 상당히 接觸을 유지할 것이고, 라틴아메리카에 對한 關係는 美國과 關係發展에 따라 定해질 것이다. 단지 今後 中共外交의 重點은 점점 中東과 아세안 各國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中共이 선전하는 '南南協力'은 中共과 第3世界와의 貿易을 가리켜 하는 말이며, 中共은 大陸의 값싼 勞動力과 西方의 科學技術을 結合해 2級商品을 生産하여서 第3世界國家에 팔고 그 利潤을 가지고 다시 工業國家로부터 科學技術을 사들이려고 할 것이다.

(5) 中共經濟外交의 目的은 四個現代化를 實現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것 역시 重要한 政策轉換의 時期에 처해 있으며, 今後에 그 政策이 變更될지 與否는 現代化 實現의 進度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